

의 홈페이지를 보자. “최고의 안전성, 도덕성, 최상의 혜택 제공, 제일 가치 있는 직장.” 아름다운 표현인데 글쎄, 나는 왜 허전하게 느껴지지?

〈논어〉에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는 구절이 있어. 무슨 의미 같아? 믿음직한 말엔 꾸밈이 없고, 아름답게 꾸민 말엔 믿음이 안 느껴진다는 뜻이야.

또 다른 기업을 볼까? “수요자에게 차별화된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를 비전이라고 써놓았네. 뭐, 많은 기업이 이런 수준이야. 미언, 아름다우나 공허해.

비전이란 북극성과 같은 거야. 기준점이 될 만한 지형이 없는 사막에서는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잖아. 북극성에 가서 무엇을 채취해 오려는 게 아니라, 길을 잃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으로 삼는 거지. 비전의 역할이 바로 그래.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초점을 갖자는 거니까.

자네 회사도 연말이 가까워오면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짜지? 이때 숫자만 생각지 말고, 사업의 방향을 깊이 고민해서 사려 깊은 한마디 비전을 제시해보렴.

자네 조직의 북극성은 뭘까? 또한 자네 삶의 북극성은 뭘까?